진실을 경험하라 -밀레
MILLET

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9800호 1판 (음력 7월 13일) 2014년 8월 8일 금요일

우암학원 창학64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N TECHNO UNIVERSITY

전남 초·중·고생 350명 '드림오케스트라' 7일 오후 목포 청소년수련관 강당에 목포, 장성, 담양, 보성, 강진, 여수지역 초·중·고생으로 구성된 드림오케스트라 단원 350여명이 여름방학을 맞아 열린 음악캠프에 모여 악기 연주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가 지난 2010년에 목포에서 처음 구성해 올해 6곳의 지역에서 운영중인 '드림오케스트라'는 클래식 음악을 접하기 힘든 학생들에게 재능과 재미를 느끼게 해주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호남사람들 일자리 없어 장사한다

사업체 수 전국의 10%…고임금 일자리 8.3% 뿐

자영업자 비중 전남·전북 24%, 광주 21% 차지

광주를 비롯한 전남·북(호남권) 지역은 일자리 양은 물론 고임금산업의 질 좋은 일자리 또한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일자리 10개 가운데 1개 정도만 호남에 있고, 창조산업 등 질좋은 일자리는 전국대비 4% 수준에 불과한데다 그 수마저 해마다 줄어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좋은 일자리가 없다보니 영세 자영업 창업 비중이 늘어 10명 중 2명 이상은 자영업자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대한민국 일자리 지도 : 지역별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호남권 사업체 수(2012년 기준 37만4834개)는 0.02% 줄고, 종사자(171만2051명)는 0.01% 증가했다.

2012년 사업체(전국 360만2476개) 비중 폭을 보면 서울(21.68%), 경기(20.85%) 등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전북(3.78%)과 전남(3.69%), 광주(2.94%) 등 호남권 통틀어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 일할 수 있는 기업이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권은 고임금에 속하는 금융보험업, 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의 분포에서도 뒤처져 일자리 질 또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 **호남권 일자리 비중** (2012년 기준)

사업체		37만 4834개…전국 10%
종사자		171만 2051명
高 임금 일자리 종사자		8.3%
창조산업 일자리		4.6%
대기업 일자리		6.7%
상용직 종사자		58.7%
〃	전국평균	62.4%
자영업 종사자	전남	23.7%
	전북	23.6%
	광주	20.8%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고임금 산업 일자리의 지역별 비중은 수도권이 사업체 비중과 종사자 비중에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각각 평균 2.6%(48.7%→51.3%)와 2.0%(56.9%→58.9%) 높아진 반면 호남권은 10.3%와 8.3%로 각각 0.6%씩 감소했다.

건축, 예술, ICT기기 등 창조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분야의 수도권 일자리 비중도 2007년 65.3%에서 67.2%로 2%가량 증가했지만 호남권은 4.9%에서 4.6%로 오히려 감소했다.

종업원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의 일자리 비중 역시 수도권은 2007년 56.6%에서 58.2%로 증가했지만 호남권은 6.7%로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다.

전문직 종사자와 대기업 일자리가 적다보니 상용직 종사자 비중은 호남권의 경우 58.7%로 전국(62.4%) 평균보다도 낮고 8개 권역 가운데 강원·제주와 함께 취약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처럼 일자리가 빈약한 탓에 호남 지역은 자영업 종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남과 전북은 자영업자의 비중이 각각 23.7%(2012년 기준)와 23.6%로 강원, 제주, 대구에 이어 4·5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광주 역시 20.8%로 전국 평균(20.0%)보다 높았다.

이는 상용직을 비롯한 기업체 일자리가 적은 반면 자영업 종사 비중이 크면서 질적 일자리 창출의 상대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고임금산업 일자리, 창조산업 일자리 등 질적으로 우수하고 선호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거점대학 육성, 지역별 특화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세월호특별법 타결…특검 추천 현행 법대로

여야, 13일 본회의서 처리
청문회 18～21일 개최
'군 인권개선 혁신특위' 구성

여야는 오는 13일 오전 본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고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는 18～21일 개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총 11개안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13일 본회의에서 세월호법을 포함해 단원고 3학년생들에 대한 정원외 특례입학을 허용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 올해 처음 도입하는 국정감사 분리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민생법안 등 주요 현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세월호국회'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특별검사 추천권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지난 6월 발효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키로 한 것이다. 그동안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에 줄 것을 요구해왔던 새정치연합이 기존 요구를 철회함으로써 합의가 이뤄졌다. 특별검사법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들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게 돼 있다. 특검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진상조사위는 여야와 유가족 등이 추천하는 17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추천 몫은 새누리당 5명, 새정치연합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 각 2명, 유가족 3명 등이다.

또 청문회는 18～21일 개최하기로 했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는 여야 특위 간사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여야는 가혹행위로 사망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의 사건을 계기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이 같은 합의 결과에 대해 새누리당은 "대승적인 합의를 이루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지만 새정치연합은 "유가족분들께는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5·24조치 해제 추석 전 이산상봉"

통일준비위, 與野 한목소리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7일 공식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한동안 주춤했던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이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또한, 여야 지도부도 5·24 대북제제 조치 해제와 아시안게임 북한 응원단 지원, 추석 이전 이산가족상봉 등을 주장하고 있어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통일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대북 민생인프라 구축을 골자로 한 '드레스덴 구상'의 실천방안 논의 외에 ▲국민 공감대 속에서의 통일정책 마련 ▲통일준비위의 범국민적 통일 공론장화 등을 주문했다.

한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북한 응원단 파견을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며 정부의 결단과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이 최고위원은 5·24 조치 해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도 이날 통일준비위에 참석해 "지금 이산가족들이 대부분 고령"이라며 "추석 전이라도 상봉을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야당은 5·24 대북제재 조치를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며 "이 조치가 없이는 어떠한 남북간 대화도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통일준비위는 이날 ▲통일헌장 제정 검토 ▲통일시대 견인할 신경제성장 모델 제시 ▲생활속 통일준비 실천과제 발굴 ▲작은 통일정책 대안 개발 등 주요 과제를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5·24 대북제재 조치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 이후 취해진 대응조치로 남북교역 중단, 북한 방문 불허,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설립 60주년 기념
"실용음악학과 정기공연"
일시: 10월 6일(월) 오후 7시30분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광신대학교 062)605-0956